

국제 재난상황에서의 심리학자의 역할에 대한 세계심리학연맹 성명

이 성명서는 2008 년 6 월 5 일 미국심리학회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APA) 가 배포한 것을 바탕으로 2022 년 3 월 31 일에 세계심리연맹 (Global Psychology Alliance, GPA)이 수정한 것으로, 심리학자들로 하여금 자연 또는 인간으로 인한 재난 상황에 효율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GPA 와 APA 는 재난상황에서의 정신건강 및 심리 지원에 관한 기관간 상임위원회 (Inter-Agency Standing Committee, IASC)의 지침을 따른다. [Inter-Agency Standing Committee \(IASC\) Guidelines on Mental Health and Psychosocial Support in Emergency Settings \(2007\)](#). IASC 가이드라인은 다양한 형태의 인도주의적 개입을 우선순위에 따라 핵심적인 부분들로 구성하는 것과 재난 상황을 겪는 사람들의 정신적, 사회적 안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IASC 가이드라인은 저개발국가와 개도국을 위해 개발되었으나 전체적인 틀은 선진국가에도 적용될 수 있다. 국제 재난상황을 지원하고자 하는 심리학자들은 자연 또는 인간으로 인한 재난 상황에 긴급 개입하는 것을 훈련 받아야 하고, 심리학자들을 배치할 수 있는 공신력 있는 인도주의적 단체들에 속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IASC 가이드라인을 따라야 한다.

IASC 의 가이드라인은 다음을 강조한다:

- 심리학자를 포함하여 국제 사회에서 긴급지원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독자적으로 활동하지 않고 해당 국가에서 공신력 있게 운영되고 있는 인도주의적 단체들을 통해서 일해야 한다.
 - 공신력 있는 인도주의적 단체의 예는 다음과 같다.
 - [United Nations Children's Fund](#) (UNICEF) 또는 [United Nations Refugee Agency](#) (UNHCR)과 같은 UN 관련 기관

- 국제적십자- 적신월사 연맹([International Red Cross and the International Red Crescent Movement](#)), 국제의료단(the [International Medical Corps](#)), 국경 없는 의사회 ([Doctors without Borders](#)) 과 같은 국제 NGO 단체

만약 위에서 언급한 기관에 속하지 않은 정신건강 전문가가 재난지역에 가서 지원을 하고자 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만족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시 지원활동을 해서는 안된다.

- 지원활동을 하고자 하는 재난 상황과 유사한 상황에서 활동한 경험이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전쟁 상황과 자연 재해로 인한 상황은 다른 개입 기술이 필요함으로 유사한 상황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 자신이 속한 사회문화적 환경 밖에서의 지원활동 경험이 있어야 하며 지원을 하고자 하는 지역 사람들의 문화와 언어를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 IASC 가이드라인¹ ([IASC Guidelines](#))에서 제시하고 있는 지원활동에 필요한 기본 역량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 지역사회 심리학 또는 공중보건 원칙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
- 재난 상황이 발생한 국가에서나 그 재난지역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발급된 서면 초대장이 있어야 한다;
- 해당 재난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구호활동을 하는 기관에 속하여 활동해야 한다;
- 직접적으로 상담-임상 서비스를 제공하기 보다는 “해당지역 스태프가 지원활동을 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교육프로그램 등 일반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IASC, 2007, pp. 74-75).

이러한 IASC 가이드라인 ([IASC guidelines on Mental Health and Psychosocial Support in Emergency Settings](#))과 자신의 전문 역량 안에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심리학자

¹ 인도적 지원기관 간 상임위원회(IASC) (2007). 재난 시 정신건강 및 심리·사회적 지원에 관한 IASC 가이드라인. 제네바: IASC. (국제이주기구(IOM) 한국대표부 번역 출간, 2016)
https://interagencystandingcommittee.org/system/files/iasc_mhpss_guidelines_-_korean.pdf

윤리규정 ([IUPsyS Universal Declaration of Ethical Principles for Psychologists, Principle 2](#) 참조)에 의거하여 일반적으로는 해당 나라의 심리학자가 아닌 사람이 다른 나라의 재난지역에서 직접적인 심리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권고하지 않는다**.

그러나 만약 위에 언급한 사항들을 만족한다면 예외적인 상황으로 간주할 수 있다. 자연 또는 인간으로 인한 재난에 지원활동을 하고자 하는 심리학자들은 해당 지역의 인도주의적 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지원활동을 해야 한다.

우리는 심리학자들이 해당 지역의 훈련가들을 양성하는 교육이나 자문을 하는 활동을 통해 해당 지역 전문가들이 지속적인 지원할 수 있는 모델을 구축하고 실행하는 것을 권고한다.

재난지역의 사람들에게 자문, 해당지역 훈련가 양성, 회복과정에 대한 자료를 제공할 때는 자신이 속한 나라의 문화적 경험들이 해당 지역 사람들의 경험과 다를 수 있음을 인지하여야 한다. 필요한 제안을 하는데 있어서도 다문화적 관점을 가져야 한다. 문화마다 외상적 사건으로 인하여 경험하는 고통과 그것을 표현하는 방식이 다를 수 있으며, 고통을 해결하는 방법도 문화마다 상이할 수 있다.

회복에 대한 심리적 개입은 그 지역사회의 정신건강 활동가나 재난의 영향을 받은 당사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며 그들로부터 피드백을 받는 과정을 거쳐 개발되어야 한다. 서양 국가 중심이나 또는 특정 나라에 국한된 교육적 개념이나 자료들을 단순히 번역하여 배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지원하고자 하는 나라에 대한 문화적 이해가 없는 진단과 치료적 접근은 오히려 *피해자를 발생시킬* 수 있다.

또한 재난지역에서 국제적인 연구를 하고자 하는 연구자들도 인간의 권리보호에 대한 기본 윤리 원칙을 지켜야 한다. ([IASC Recommendations for Conducting Ethical Mental Health and Psychosocial Research in Emergency Settings](#), 2014).

심리학자들의 국제적 역할

- 정보, 자문, 교육을 제공

- 재난 상황에서의 정신건강 및 공중보건 서비스에 대한 경험이 있는 심리학자들은 자료를 제공하거나, 공신력 있는 인도주의적 기관에 자문하거나, 해당국가의 전문가들을 교육할 수 있다.
- 이러한 활동을 해당 국가의 대표 심리학 단체²나 공신력 있는 다자주의적 (multilateral) 기관 또는 NGO 단체 (예, 국제적십자- 적신월사 연맹)를 통해서 시행하는 것을 권고한다. 심리학자들의 지원 참여에 대한 호소도 이러한 기관들을 통해서 진행하기를 권고한다. 그럴 경우 필요한 기관들과 원활한 협력이 이루어지고 기존 구호시설과의 통합도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 **재난 지역의 심리학자들과 협력적 연구 관계 설립**
 - 보다 효과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재난과 관련한 심리적 요소를 연구하는 해당지역 정신건강 연구자들과 협력하여 연구 관계를 설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 특별히, 당사자들의 심리적인 요구와 자원을 측정하고 효과적인 개입에 대해 평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심리학자들의 자국에서의 역할

- **자국에서 재난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을 지원**
 - 심리학자가 속한 지역사회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자연이나 인간으로 유발된 재난 상황의 피해를 경험한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여기에는 재난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을 비롯하여 자신과 가까운 사람들이 재난을 경험한 것도 포함된다.
 - 또한 국제구호활동을 하고 고국으로 돌아온 사람들도 포함된다.
- **국제적 지침과 기준을 공표**

² 대규모 국가적 재난이 발생한 경우, 한국의 심리학자들은 한국심리학회 재난심리위원회를 중심으로, 심리적 응급처치 등 기본 교육을 이수한 후, 윤리 원칙을 준수하면서 심리 지원을 제공합니다.

- 심리학자는 심리사회적 개입에 대한 국제적 지침과 기준을 알리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러한 노력은 보다 정비되고 효율적인 개입을 제공하는데 중요하다.
- **외상적 사건 반응에 대한 문화적 차이와 심리적 지원 및 전략의 다문화적 이해를 증진**
 - 외상적 사건, 트라우마 반응, 회복을 위한 적절한 개입은 사람들이 속한 문화와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모델 또는 전략을 번역하여 전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어떤 개입이든지 그 지역사회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야 하며, 해당 국가에서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제공될 수 있는 모델을 구축하여야 한다.
 - 심리학자는 해당국가의 문화적, 영적, 언어적 차이점과 재난 생존자의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상황들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한다. 또한 해당 지역의 치료 전달체계와 재난생존자에 대한 해당 지역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 알고 훈련과 자문을 제공해야 한다.
- **미래를 위한 준비**

우리는 심리학자들이 재난상황에서 정신건강에 대한 훈련을 받고 재난 상황에서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기를 촉구한다. 이를 위해 재난지역에 대한 자문과 훈련의 기술을 습득한 심리학자들을 지속적으로 배출하기를 권고한다.

피해를 초래할 가능성

심리학자들은 자신의 전문 역량 안에서 지원을 제공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윤리를 위반하며 피해자를 발생시킬 수 있다. 특별히,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같이 심각한 고통을 경험하는 사람들을 개입할 때는 자신의 전문 역량의 범위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그렇지 않은 활동에 대해서는 엄격히 제한하여야 한다. 트라우마에 의해 표현되는 증상들은 사회문화적 배경에 따라 다양하며, 효율적인 개입법 또한 문화에 따라 다를 수 있다. 그러므로 심리학자는 문화적으로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오히려 서비스를 받는 사람의 정신건강을 해치거나 증상이 심각해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 ([Guidelines for International Training in MHPSS Interventions](#) 참조).